



| | |
|--------------|----------------|
| 제목 | 키루스의 교육 |
| 발행언어 | 한국어 |
| 발행처 | 한길사 |
| 발행일 | 2015. 9. 25. |
| 저자 | 크세노폰 이동수 옮김 |
| 출판국가 | 대한민국 |
| 페이지수 | 441 |
| ISBN 또는 ISSN | 978-8935664405 |

내용 요약

이 책은 이상적인 군주이자 바람직한 정치적 인간인 키루스 대왕의 일대기로서 사실적 기록이라기보다 역사 소설에 가깝다. 크세노폰의 분석에 따르면, 키루스가 지배 받기 싫어하는 인간도 자발적으로 복종하는 인간으로 변형시키는 능력을 가지게 된 이유는 한편으로 키루스의 혈통과 자질이요, 다른 한편으로는 그가 받은 교육이다.

1권 키루스의 어린 시절에서는 페르시아와 메디아의 두 왕가 혈통을 이어받은 출생 과정을 적고 있다. 키루스는 군사기술, 절제와 복종심을 주입하는 교육을 받은 동시에 메디아에서 보낸 소년기에 메디아의 장단점까지 교육받았다. 청년기에는 메디아를 도와 원군의 사령관이 되었다. 2권에서는 성년이 된 키루스가 외삼촌인 키악사레스의 요청에 따라 메디아에 원군을 이끌고 가는 내용, 이후 외삼촌과 침략군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를 의논하는 모습이 묘사되어 있다. 군대의 재조직에서는 군사력을 증강하기 위해 보수를 지급하거나 출신에 상관없이 무기를 가지고 최선의 위치에 배치시키는 개혁을 실시하였다. 3권에 메디아를 배반하여 공물을 바치지 않는 아르메니아를 정복하는 과정이 서술되어 있다. 4권에서 키루스는 아시리아군과의 전투를 거치면서 페르시아 자체 기병대를 만들기로 결정한다. 5권에서는 키루스가 아시리아 왕의 조력자였던 고브리야스를 자신의 최대의 조력자로 만드는 과정이 서술되어 있다. 6권에서는 키루스가 아시리아 침략군을 무찌르고 난 후 아시리아의 본거지인 바빌론을 공격하는 과정을 그렸다. 7권은 바빌론을 함락시키는 과정이, 8권에는 키루스가 왕이 되어 제국을 다스리는 과정이 서술되어 있다.